

100만평 '미래차 산단' 어떻게 채울까 지혜 모은다

강기정 시장 22번째 월요대화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 논의 부품집적단지·자율주행 기술 실증 공간 활용, 인력 양성 등 의견 나뉨

광주시가 최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미래 자동차 산업단지 조성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100만평 규모의 미래차 산단에 무엇을,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전날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22번째 '월요 대화'를 열어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을 주제로 지역 혁신·연구기관, 자동차 업계 관계자 등과 의견을 나눴다.

최전 광주그린카진흥원 사업본부장은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가산단 추진 배경, 조성 절차, 인프라 구축, 미래 차 산업생태계 확장 방안 등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최 본부장은 "광주경제의 중심축인 자동차산업의 생존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가산단이 절실했다"며 "국가산단이 선정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미래차 전환 인프라 구축과 관련 기업 집적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 차 국가산단은 빛그린 국가산단

·진곡산단과 연계해 부품 개발-생산-인증-완성차-리사이클링의 선순환 생태계를 이루는 혁신거점이 돼야 한다"며 "여기에 광주의 인공지능(AI), 광·가전 등 연관 산업을 융합해 완벽한 밸류체인(가치사슬)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기존 산단과 다른 스마트 기반시설로 구축된 획기적인 미래 산단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토론에서 친환경 자동차 부품집적단지 활용, 자율주행 기술 실증 시험 공간 활용, 지역 기업 미래 차 전환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인력 양성 등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운성 광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은 "자동차 산업은 광주 제조업의 43%를 차지한다"면서 "당장

은 기업들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뤄야 하지만, 동시에 미래 먹거리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산업이 기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자동차로 빠르게 전환되는 만큼 지역 내 완성차 협력업체들도 미래 차 산업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재봉 광주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광주에서 39년째 기아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래 차 국가산단 유치는 현대차의 기아 인수 이후 두 번째로 큰 선물인 것 같다"며 "지역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린다. 인재들이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이에 임현택 광주과학기술원(GIST) 연구혁신

센터 선임연구원은 "사회도 산업도 거버넌스 시대다. 인력도 반도체·AI·빅데이터 등을 융합해야 한다"면서 "융합인력 양성에 대학도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미래 근거지를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국가산단 유치에 나서 멋지게 성공했다"며 "이제 100만평을 무엇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고민이 더 깊어진 만큼 미래형 산단 조성에 아이디어와 지역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월요대화'는 민선 8기 들어 교육·청년·복지·경제·창업 등 8개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강기정 시장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정책 소통 자리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반려식물로 도심을 푸르게 가꾸고 21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반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에서 시민들이 동구청에서 준비한 목수국, 서향나무 등을 받아들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북·넙치 양식 매뉴얼 개발 착수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사육 방법 개선 등 연구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체계적 어장 환경, 양성 관리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완도지역 전북 종자와 넙치 육상양식장 대상 양식 환경 및 사육 방법 개선 연구에 착수, 맞춤형 양식 매뉴얼을 개발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완도군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등 5개 읍면에 각 10개소씩 총 50개소에 육상 전북 종자 25개소와 넙치 양식장 25개소를 선정해 매일 양식장 수질환경 측정과 입식량, 급이량, 선별 시기 등 양성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된다.

지난해 넙치 생산량은 2만1000t(3400억원)으로 전국(4만9000t)의 43%, 전북은 2만1000t(6700억원)으로 전국(2만2000t)의 99%를 차지하는 등 전남 수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양식 품종이다.

최근 기후변화, 고수온 등으로 전북, 넙치 폐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어 체계적인 어장환경, 양성관리로 생산성 향상과 우수한 품질 생산을 위한 양식 매뉴얼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완도지원은 5년간 도비 4억7000만원을 들여 지역 특성에 맞는 어장 환경과 양성 관리 분석을 통한 최적의 양식 매뉴얼을 개발하고 향후 도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문 모니터링 인력 투입과 실시간 수온 측정 장치 설치해 어장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양식 용수의 정밀 수질 분석으로 안정적 어장 환경에서 수산물 생산되도록 현장 지도도 함께 실시한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앞으로 품종별 양식 환경 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최적의 양식 방법을 마련해 안정적 소득 창출과 양식수산물의 고품질화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기후변화, 고수온 등으로 전북, 넙치 폐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어 체계적인 어장환경, 양성관리로 생산성 향상과 우수한 품질 생산을 위한 양식 매뉴얼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역사민속박물관, 3회 연속 인증기관

전국 272곳 공립박물관 평가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평가한 전국 공립박물관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3회 연속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해는 우수기관 사례 발표도 할 예정이다.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주요 사업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문체부는 이번에 전국 272곳의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운영 실적을 심사해 최근 인증기관 140곳을 발표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100년 역사의 광주역과 임동 방직공장을 광주만의 스토리로 담아 기획전시회를 개최한 점은 다른 박물관의 귀감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가 지정 사적인 신창동 유적에 마한유적체험관을 개설해 사적의 의미를 널리 알린 점도 호평 받았다.

문체부는 오는 3월 31일 열리는 '2022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공유회'에서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제4·3평화기념관 등 6곳의 운영 성공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해상풍력 연구·기술 개발

전남도는 21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낙월블루하트주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중인 영광 낙월 해상풍력단지 내 연구·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남도와 낙월블루하트는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하는 영광 낙월해상풍력단지를 공동 연구·실증기지로 활용해 해상풍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나서는 한편, 축적한 공공데이터를 국가차원으로 확보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쓰기로 했다.

낙월블루하트 강현재 대표이사는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영광 낙월해상풍력 사업이 글로벌 해상풍력 생태계 구축과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험 가치를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지방평가 라운지

광주 장애인, 건강한 사회생활 환경 조성

이명노 시의원 조례안 발의

광주시의회 이명노(민주·서구 3) 의원이 장애인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광주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1년마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시행 ▲장애인친화도시 협력 체계 구축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복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으면 좋겠다"며 "나아가 다음달 22일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추진될 장애인친화도시 선포식이 허울 뿐 아니라 더욱 내실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절판 판매 중

이방인

문이당 | 15,000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